

회장선거와관련된 규정

1. 정관- 제13조(회장의 선출)

- ①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장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총회출석원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독립적으로 회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총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전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다수 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회장의 입후보자격은 입후보 등록일 현재 본 협회 정회원의 자격을 2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④ 회장선거 일정은 정기총회 개최일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선거규정"에 의한다.

2. 회장선거규정

- 제14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표를 하는 때에는 지정된 기표용구만을 사용하여 "○" 표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투표)- 투표자는 선관위원회에 주민등록증 또는 선원수첩등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고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다음 자기 자리로 되돌아간다.

제18조(무효투표)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둘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기표란 이외에 기표한 것
 6. ○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
 8.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관위에서 비치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두 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인주로 오손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③ 기타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준용)-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과 이 규정에는 없는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사)한국해기사협회 회장선거 후보물

기호	회장 입후보자	
1	김종태 金 鐘 泰 [1963년 02년 28일 생]	

학력

- 85. 02. 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37기) 졸업
- 08. 08.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항만물류학 석사) 졸업
- 11. 01.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과 명예 졸업(명예 29기)
- 12. 02.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해운경영학 박사) 졸업

승무경력(총 5년 11월 23일)

- 85. 03. ~ 89. 01. 2~3 등기관사 대한선
- 89. 03. ~ 91. 08. 1~2 등기관사 주
하자선

육상근무경력

- 91. 10. ~ 06. 09. 한진해운 해무부(~부장)
- 06. 10. ~ 16. 12. 한진에스엠 해상인력담당(부장~상무), 해상인력그룹(그룹장/상무), SM2본부(본부장/상무)
- 17. 01. ~ 17. 08. 유수에스엠(전, 한진에스엠) 대표이사
- 18. 03. ~ 23. 01. (특)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상임부회장

기타주요경력

- 前 (사)한국해기사협회 29대, 31대 이사 (11. 03. ~ 14. 03., 17. 03. ~ 20. 04.)
- 前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해사안전 분과위원 (18. 10. ~ 19. 09.)
- 前 부산해사고등학교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 (18. 04. ~ 22. 03.)
- 前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비상임이사 (18. 03. ~ 23. 01.)
- 前 (사)한국선장포럼 자문위원 (19. 04. ~ 23. 01.)
- 現 (사)한국해양안전진흥협회 상임운영위원 (16. 06. ~ 현재)
- 現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8. 04. ~ 현재)
- 現 부산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 위원 (18. 11. ~ 현재)
- 現 한국해양기자재연구원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20. 06. ~ 현재)

출마 소견서

한국해기사협회 차기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김종태 입니다.

저는 한진해운과 유수에스엠에서 33년을 재직하며 최종 대표이사의 직책을 수행하였고 최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서 상근부회장으로 5년간 일하며 오직 선원·선박관리 분야에서 저의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서 재직기간 중에는 정부예산을 연간 10억원 이상 확보함으로써 협회의 재무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국적선사들이 BBCHP 선박들을 해외 선박관리사들에 위탁관리 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어 육상 해기사들의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한국 선박 관리산업의 안정화를 도모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해사산업계의 최대 이슈는 해기사의 승선직 기피로 인한 해기단절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일본처럼 승선 해기직 단절이 종국에는 우리나라 육해상 해사사회의 붕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해기 단절을 막고 해기전승을 할수 있는 골든타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해기사협회는 해기전승을 위한 마지막 구조선을 띄우는 심정으로 12개 해기사 관련 단체로 구성된 '미래해기인력육성협의회'를 구성하여 협회장이 직접 사무총장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기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해기사협회의 장으로 제가 적임자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저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하며 업계, 관련단체, 정,관계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하여 취임 즉시 협회장으로 모든 업무가 가능한 다양하고 풍부한 인적네트워크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선박관리업체의 임원 및 CEO를 다년간 수행하여 협회의 비전과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으며, 또한 해기전승을 위한 '미래해기인력육성협의회'에 사무총장 역할을 할 수 있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갖춘 선원정책 전문가입니다.

셋째, 한국해양대학을 졸업하고 목포해양대학을 명예 졸업하였으며 부산해사고에서 운영위원장 역할을 수행한 저는 향후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체 회원들을 단결, 화합시킬 수 있는 넓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드린 3가지 장점을 잘 활용하여 해기사들의 권익보호와 해기전승을 위한 다음의 정책들을 개발하여 가겠습니다.

첫째, 한국 해기사 해기전승을 위하여 '미래해기인력육성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범 국가적 마스트 플랜을 수립하고, 전략과제들을 집행하겠으며 다음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추진

- 장기승선 해기사 지원정책 개발
 - 선원 소득에 대하여 연 6개월 이상 승선 시 전액 비과세 추진
 - 선박직, 해양경찰 등 해양 관련 공무원 채용시 승선경력 가점을 5년으로 확대
 - 고급사관의 휴가제도를 유럽 수준으로 점진적 개선 추진
- 톤세제 등을 통한 한국해기사 해기전승기금 확보
- 육·해상 해기사 관련 불합리한 법령, 제도 개선
- 부산항 1부두에 선원역사기념관 및 마도로스거리 조성

둘째, 육·해상 해기사 재취업 플랫폼 역할 및 친목도모

- IT SYSTEM 최적화 하여 해기사들의 재취업 플랫폼 역할 강화
- SNS와 내부시스템을 활용 회원들과 다양한 소통창구 활성화
- 산행, 야구관람 등 정기적이고 다양한 친목행사

셋째, 육·해상 해기사 복지혜택 증진

- 단체 상해보험 개발, 복지물 연계 등
- 육·해상 해기사 및 가족에 대한 법률, 세무, 노무 자문단 운영

넷째, 협회 재정의 안정화

- 정부, 지자체와 연계한 안정적 협회 수익사업 개발
- 내항선사 승선 해기사와 육상근무 해기사의 정회원 가입 확대

우리에게 다가올 앞으로 3년은 우리나라가 해기사 양성과 해기전승의 성공, 실패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협회장 선거는 한국 해기사의 맥을 이어 새로운 해기사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선택의 시점인바, 회장직을 확실히 실행할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검증된 리더가 협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 책임자가 저라고 확신 합니다.

함께, 같이하는 한국해기사협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해기사입니다. 모두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